우리는 인간이었던 적이 없다

다나 해러웨이『반려종 선언』

최 유 미

1. 다나 해러웨이, 사이보그에서 반려종으로

다나 해러웨이의『사이보그 선언』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2003년에 발표된『반려종선언』이라는 새로운 선언에 조금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여태까지 해러웨이가 주목했던 사이보그나 옹코마우스등에 비해 개는 너무 평범하고 일상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새로운 책에는 여태까지의 단골 삽화 파트너인 린 랜돌프의 그림들 대신 장애물을 뛰어넘는 개의 사진들이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사이보그선언』에서 해러웨이는 사이보그를 통해 핵전쟁에 동원된 테크노사이언스, 그리고 테크노사이언스와 페미니즘과의 모순적인 얽힘을 모두 말하려고 했다. 테크노사이언스는 신성한 노동 = 남성의 일이라는 등식을 해체했고, 제 3세계 여성들은 그 덕분에 생식이 아니라 노동의 주체로 거듭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 3세계 여성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으로 죽어간다. 또한 테크노사이언스는 도시에 풍요를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가난한 해안의 시골마을 사람들이 그 풍요의 과실을 조금이나마 먹어먹기 위해선 핵의 위험을 고스란히 감내해야하는 선택으로 내몰렸다. 현실은 이렇듯 늘 모순적인, 한데 얽혀있는 실타래와 다름이 없다. 여기에 물질과 정신, 자연과 인공, 목적과 수단이라는 뼛속 깊은 이분법으로 어떤 해법을 고안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해러웨이는『사이보그선언』에서 이렇게 말한다.

"사이보그의 몸은 죄 없는 것이 아니다. ... 그것은 아이러니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하나는 너무 적고, 둘은 오직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다. 능력, 기술 능력에 의한 강력한 기쁨은 더 이상 죄가 아니며, 체현의 한 양상일 뿐이다. 기계는 생명을 불어넣어야 할 그것이 아니며, 존경해야 할 그것이 아니고, 지배해야할 그것도 아니다. 기계는 우리며, 우리의 활동이며, 우리의 체현의 한 양상이다. 우리는 기계에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들은 우리를 지배하거나 위협하지 않는다. 우리는 경계에 책임이 있다. 우리는 그들이다."[1)]

이 도발적인 선언으로 해러웨이는 에콜로지 관련 학회에서 소위 "딥 에콜로지스트"들로부터 강간당해 마땅한 여자로 비난받았다. 그들의 논리는 자연을 강간하는 자에게는 강간으로 보복하자였다. 이 어이없는 테러는 어머니 자연이라는 판타지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어머니 자연에 대한 판타지는 인간주의와 거울상이다. 그렇기에 사이보그는 주홍글씨고, 주홍글씨에 대한 모욕이 더해질수록, 인간주의는 더 흉측하게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새로운 1000년이 시작된 지 10년도 더 지나버린 지금. 사이보그는 좀 묘해지는 것 같다. 테크노사이언스가 만드는 디스토피아의 영화적 상상력은 여전하지만, 컴퓨터 운영체제와 사랑에 빠지는 상상력이 가능한 시대다. 사이보그는 더 이상 괴기스럽지 않고 도래할 인류인 포스트휴먼의 자리를 꿰찬 것 같다. 이것이 해러웨이가 사이보그에서 개로 옮겨간 이유이

1) Donna J. Haraway ,"A Cyborg Manifesto", 1989

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사이보그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지구 서바이벌을 위한 사이보그를”이라는 구호는 더 이상 주홍글씨가 아닐 만큼 익숙해져 버린 것이다.

『반려종선언』에서 해러웨이는 사이보그를 반려종이라는 새로운 종의 어린 친족으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테크노사이언스의 정치를 빠져나올 길잡이로 선택한 것은 사이보그 대신 개다. 개는 옹코마우스처럼 인간 대신 유방암을 앓는다는 조건으로 태어난 그런 기막힌 사연을 가지고 있는 생물체가 아니다. 개는 너무나도 일상에 포섭된 존재다. 소위 ‘동물-되기’의 치명적인 감응을 발산하는 악마적인 동물이 아니다. 『천의 고원』에 나오는 블레디미르 슬레피안의 「개-되기」[2]에 실제 우리와 사는 개는 없다. 함께 사는 개는 오히려 오이디푸스적인 개로 치부되기에 「동물-되기」의 파트너가 아니다.

그러나 일상의 개를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까? 해러웨이 말대로 만남이 있기 전에 파트너가 있을 리 없다. 여전히 비인간들을 인간의 역사와는 무관한 수동적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벗어나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인간중심주의에 발목이 잡혀있는 것은 아닐까? 이 강의는 포스트휴먼이 주제다. 사이보그, 인공지능, 인간의 경계에 대한 질문들이 당연한 토픽들인텐데, 『사이보그선언』이 아니라 『반려종 선언』을 강의로 택한 것이 의아하실 것이다.

해러웨이의 『반려종 선언』은 관계에 대한 질문이다. 인간의 경계에 질문을 던지는 포스트휴먼의 제 논의들에서 인간중심주의는 변형된 형태를 취하지만, 여전히 고약한 악취는 그대로인 것이 사실이다. 도래할 포스트휴먼의 시대에는 탁월한 육체적인 능력을 가진 신인류가 새로운 권력을 움켜쥘 수도 있고, 『블레이드러너』의 복제인간들처럼 인간과 유사한 새로운 종이 우주 정복의 노예로, 혹은 고갈되어가는 자원채취의 노예로 쓰일 수도 있고, 사이보그 마르크스가 사이보그판 『자본론』을 쓸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도래할 포스트휴먼은 우리와 일상의 삶을 엮어가게 되는 다른 종, 거의 새로운 종일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포스트휴먼 논의 역시 기존의 인간과 도래할 인간이 어떤 관계를 가지면 좋을 지에 대한 논의들이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 이외의 다른 종과의 역사를 함께 하는 것은 도래할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이 생기면서부터, 인간은 다른 종과 그물코처럼 얽혀서 공동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 하지만 그 공역사성은 철저히 무시되어져 온 것 같다. 그 무시되어온 역사에 개가 있다. 개는 애완견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마르크스의 어법을 그대로 따라 한다면, “개는 개다. 특정한 관계 속에서만 그것은 애완견이 된다.” 해러웨이가 사이보그를 반려종이라는 새로운 종의 어린 친족으로 넣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글에서는 개, 고양이, 늑대, 비버, 쥐 등등의 동물들과 인간이 만남을 통해서 형성해온 이종협동의 역사를 더듬어 가려고 한다. 인간만의 역사가 아니라, 상호 주체적인 관계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살만한 세상을 위한 새로운 매듭을 묶을 길은 요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우리는 인간이었던 적이 없다”[3]이다.

2. 반려종

해러웨이는 반려종(companion species)이라는 새로운 종의 개념을 창안했다. 종(species)은 생물학의 분류 중 하나다. 인간은 호모속에 사피엔스종, 사피엔스아종이고, 개는 개속에 회색늑대종, 개아종이다. 생물학적 분류에는 어디에도 반려라는 종은 없다. 반려동물이 익숙한 말

---

2) 질 들뢰즈, 팰릭스 가타리, “천개의 고원”, 1730년-강렬하게 되기, 동물-되기, 지각불능하게-되기
3) Donna J. Haraway, "When Species Meet: Part1. We have never been human", (2008)

이기 때문에 반려종은 동물 아닌 것도 포함된 넓은 의미의 반려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해러웨이는 새로운 분류로서의 종의 창안을 말하고 있다. 반려동물이라는 말은 애완동물을 좀 더 높여 부르는 말로, 미국에서는 1970년대 수의학과의 의학-사회심리사적 연구에서 부터라고 한다. 같이 사는 동물이 단지 애완용의 역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인간의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든지, 트라우마나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 등이 밝혀졌기에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인정한 용어이다. 그러나 해러웨이가 말하는 반려종은 이런 의미의 반려동물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 아니다. 반려종의 1차적 의미는 생물학적 친족관계를 가진 종이다. 내 개와 내가 반려종이라 했을 때, 진화생물학적인 세포를 나누어가진 친족이라는 의미가 1차적이다. 현행의 분류체계로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중에 약 10%만이 인간의 게놈이고 나머지는 세균, 균류, 원생생물등의 게놈이라는 사실[4)5)]에 비추어 본다면, 원래의 분류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것은 일찍이 린 마굴리스가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의 기원을 세포내 공생의 결과로 설명해 낸 바 있다. 생물학적 종으로서의 반려종은 세포내 공생과 같은 소화불량의 뒤엉킨 뿌리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테크노사이언스에 의해 유기적 신체가 오염되기까지 한 착종의 뿌리를 가진다. 그러나 무엇보다 진화생물학적 종이 갖는 의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밖에 종(species)라는 말에는 철학적인 카테고리로서의 차이를 정의하는 의미도 있고, 미사의 성찬예식의 빵과 포도주라는 물질적이고 기호론적인 의미도 있고, 정화(正貨), 곧 돈이라는 의미와도 얽혀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중심주의의 냄새도 짙게 배어 있는데, the species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간을 의미하고, 멸종위기종이라는 언설은 식민화된 선주민처럼, 멸절의 위기에서 구해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보호가 절대적인 수동적 존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반려(companion)이라는 말의 라틴어 어원은 쿰 파니스 (cum panis, 빵을 함께 나누다)에서 왔다. 빵을 함께 나누는 관계는 우리말의 감각으로는 식구라는 의미다. 식구는 혈연이나, 혼인관계에 의해 관련성을 가지게 된 집단을 일컫고, 배타성을 내포하는 강고한 경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반려가 종과 연결될 때 의미는 달라진다. 빵을 나눈다는 의미의 반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진화생물학적 존재인 종과 연결되면, 빵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에 서로의 몸을 빵으로 먹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함께 먹기도 하지만, 서로를 먹기도 하는 존재가 반려종에 담겨있는 1차적인 의미다.

내 몸을 이루는 세포들의 숫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인간의 게놈을 가진 것이 아니다. 박테리아나 세균들은 내 피부에서 장기까지 빠짐없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는 인간 게놈의 1/12정도는 수백만년 전의 원시인류가 감염되었던 바이러스에서 나온 것으로, 그들과 함께 진화해온 것이다. 어떤 세균들은 내 몸을 유지하는데 유용할 것이지만, 어떤 것들은 내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내가 살아 있는 것은 유용한 역할을 하는 녀석들이 적절히 다른 녀석들의 공격을 막아주거나 약화시켜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은 모두 내 몸에서 인간 게놈을 가진 세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반려라는 경계에는 유용성의 유무라는 기준은 없다. 어쩔 수 없이 함께 밥상에 둘러앉게 되는 것들이 반

---

4) Glausiusz, Josie. "Your Body Is a Planet". Science for the curious Discover, Retrieved 2007-09-16

5) Wenner, Melinda. "Humans Carry More Bacterial Cells than Human Ones". Scientific American, Retrieved 2007-11-30.

려들이다. 둘러 앉은 밥상이 뒤엎어지지 않도록, 서로 조심조심 식사를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의 한시적인 관계다. 죽은 다음에는 그들은 내 몸을 통째 식사재료로 넘겨받을 것이고, 잠시 후에는 더 많은 식사동료들이 초대되어 다른 밥상이 차려 질 것이다. 반려종에서 식구라는 경계는 매우 임의적이고 한시적이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사이언스, 테크노사이언스도 다른 때라면 초대 받지 못할 손님들을 식탁으로 불러들이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선수들이다. 그래서 반려종은 테크노사이언스의 반려종이기도 하다.

반려와 종이 이어진 반려종이라는 새로운 종에는 인간중심주의적인 종개념은 사실상 설자리가 없다. 반려종의 구성원은 말 그대로 서로 짝하는 존재이므로 무조건 둘이상의 관계가 최소의 단위다. 그러니까 반려종의 카테고리에는 내 몸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원의 세포들이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다양한 기원의 세포들로 이루어진 개와, 늑대, 사이보그등등 자연-문화에 얽혀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모두 진화생물학적인 친족관계를 이루며, 물질적이고 기호론적인 의미를 지니고, 또한 자본주의, 돈의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 새로운 종의 선언, 『반려종 선언』은 이렇게 시작한다.

미즈 카이엔 페퍼는 나의 모든 세포를 식민지화한다. 이것은 분명히 생물학자 린 마굴리스가 심바이오제네시스라고 부른 현상이다.[6] 카이엔과 나의 DNA를 조사하면 우리 사이의 강력한 트랜잭션[7]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카이엔의 침속에는 바이러스 벡터[8]가 존재하는 것이 틀림없다. 혀를 재빨리 놀리는 그녀의 키스는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다. 우리들은 척추동물문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속(genera)도 과(families)도 목(orders)까지도 다르다.

우리를 어떻게 분류해야 좋을까? 개와 사람. 애완용 동물과 교수. 암캐와 여자. 동물과 인간. 운동선수와 트레이너. 한쪽은 식별을 위해서 목의 피부에 마이크로 칩을 심어놓고 있다. 또 다른 한쪽은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라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 한쪽은 스무 세대나 거슬러 올라가는 문서기록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쪽은 증조부모의 이름조차 모른다. 우리들 중 한쪽은 대규모 유전자적 혼교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순혈종"이라 불리고, 또 한쪽은 같은 정도로 대규모 유전자 혼교의 산물임에도 "백인"이라 불리고 있다. 이 명칭들은 각기 종족적인 담론을 의미하고 있고, 우리들은 각기 그 귀결을 우리의 육체 속에서 계승하고 있다.

우리들의 한쪽은 불타오르는 젊디젊은 신체적 단계의 정점에 있다. 다른 한쪽은 건강하기는 하나 벌써 사양길이다. 우리들은 함께 어질리티[9]라는 팀 경기를 한다. 그 장소는 카이엔의 선조가 일찍이 메리노종의 양의 망을 보고 있던 곳과 동일한 강제 수용된 선주민의 토지이다. 그리고 그 양은 골드러시로 캘리포니아에 쇄도한 포티 나이너즈(49ers)[10]의 식량으로서 당시에 이미 식민지화 되어있던 오스트레일리아의 목축경제로부터 수입 되어 온 것이었다. 이런 역사의 모든 층위들, 생물학의 모든 층위들, 그리고 자연문화들의 모든 층위들 속에 있는 복잡성이야말로 우리들의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우리들은 다 같이 자유를 갈망하는 정복의 자식들이고, 백인개척자가 만든 식민지의 산물이고, 그리고 함께 경기장의 허들을 뛰어넘고, 터널을 빠져나간다.

나는 우리들의 게놈이 정도 이상으로 많이 닮아 있다고 확신한다. 비록 우리들의 한쪽은 나이 때문에,

---

6) Lynn Margulis(1938-2011)는 1970년대에 진핵생물은 다른 종의 공생으로부터 진화했다고 하는 세포내공생설을 주창한 미국의 생물학자. 심바이오제네시스(symbiogenesis)는 두 가지 개별의 유기체가 통합되어 새로운 유기체를 형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엽록체나 미토콘드리아의 기원은, 숙주에 다른 생물이 세포내공생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

7) 생물공학에 있어서 바이러스 등의 분리된 핵산을 세포에 감염시키고 증식시키는 것

8) 세포 밖에서 내부로 유전자를 도입하는 『운반체』. 유전자 再組合에 있어서 목적의 유전자를 수용균에 옮겨 넣는 DNA를 가리킨다.

9) 사람과 개가 2인 1조가 되어 하는 장해물경기

10) 49ers는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쉬가 절정을 이루던 1849년에서 나온 말로 금을 찾아 떠나는 개척자를 말한다.

다른 한쪽은 불임수술에 의해서, 각기 재생산이라는 의미에서는 침묵한 여자들일지라도. 이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길 생명의 유전정보 속에 우리들의 접촉에 관한 어떤 분자적 기록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적록색 털을 가진 오스트레일리안 셰퍼트는 지금까지 그 민첩하고 부드러운 혀를 사용해서 활발한 면역계 수용체를 가진 나의 편도선조직을 핥아 왔다. 나의 화학수용체는 그녀의 메시지를 도대체 어디로 나른 것일까? 자기와 타자를 구별하고 외부와 내부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녀는 나의 세포 시스템에서 무엇을 수집한 것일까?

우리들은 금지된 대화를 나누어 왔다; 우리는 입으로 혀로 서로 사랑을 나누어 왔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저 사실일 뿐인 이야기를 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우리는 서로에게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본질적으로 반려종이다. 우리는 상대방을 서로의 몸속에 만들어 낸다. 구체적인 차이에 있어서 서로에게 현저하게 타자인 우리들은 서로의 몸속에 사랑이라 불리는 짓궂은 발달성의 감염을 나타낸다. 이 사랑은 역사적인 일탈이고, 자연문화적인 유산이다. (스포츠기자의 딸의 노트에서)

해러웨이와 오스트레일리안 세퍼트인 카이엔페퍼는 각각 백인과 순혈종이라는 종족적인 담론을 각각의 육체에 계승하고 있다. 미국 서부의 목양견인 세퍼트가 왜 오스트레일리안 세퍼트라고 불리게 됐는지 그 명칭의 유래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이 개들은 백인의 식민지개척의 역사와 골드러쉬, 그리고 남북전쟁이후 그 삶의 터전이 깡그리 파괴 되어버린 서부의 아메리카선주민의 피눈물 나는 역사에 결부되어 있다. 미국 서부의 선주민들은 일찍이 스페인 선교단에 의해 전수된 목양업을 하고 있었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골드러쉬로 사람이 몰리자 그들에게 공급할 양고기의 수요가 급증했고, 선주민이 키우던 양 대신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미동부로부터 메리노종 양과 함께 목양견들이 이주해 온 것이다. 남북전쟁이후, 멕시코계 이민자, 스페인계 이민자인 캘리포니오, 그리고 선주민인 인디언들이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기까지 양과 전문 목양견으로서 세퍼트들의 이주는 계속되었다. 농장마다 유형의 편차가 심한 개들을 오스트레일리안 세퍼트로 등록되기 시작한 것은 소수의 애호가들에 의해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안 세퍼트 클럽이 생긴 1957년 이후이지만, 본격적인 등록은 1970년 이후라고 한다.

해러웨이가 자신의 개와 함께 몸으로 계승한 폭력적인 역사를 잊지 않고 말하려 하는 것은, 『사이보그선언』에서 스스로 도플갱어가 된 사이보그가 군사주의, 자본주의, 국가장치로부터 태어난 사생아임을 잊지 않은 것과 같다. 우리가 지금 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서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망각은 기호와 육체를 파손하여 부패시키고, 사랑을 초라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해러웨이는 말한다. “내가 골드러시와 남북전쟁 이야기를 하면, 아마 나는 개와 그 인간들에 관한 나머지 이야기도 잊지 않고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주와 토착의 세계, 일, 희망, 사랑, 놀이 이야기, 그리고 주권과 생태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자연-문화에 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함께 살 가능성을 살피는 이야기들 말이다.”

반려종이 된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말하자면 살기위해 타자를 도구로 이용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숙명을 타고난 존재들이 서로 얽혀서 만들어낸 그물망을 인식한다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기존의 매듭 을 풀고 새로운 그물의 매듭을 매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반려종이 된다는 것은 상호 도구적 관계를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세속적인 것이다. 어떤 것도 도구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고원한 언설은 인간만이 예외라는 폭력적인 언설과는 대극점에 있으나 그것의 효과는 비슷한 것 같다.

3. 호기심

데리다는 「그러면, 동물은 응답했는가?(And Say, The Animal Responded?)」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라캉의 인간과 동물의 구분에 대한 논의를 신랄하게 비평했다. 라캉은 동물은 언어가 없고, 언어에 절대로 시달리지 않기에 상징계로 진입하지 못한다고 했다. 상징계의 질서에 대한 라캉의 분석은 인간을 동물로 남게 하지만, 동물에게는 없는 욕망과 무의식을 가진 말하는 동물로 남게 한 것이다. 그래서 동물은 응답(response)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에 대해 반응(reaction)으로 환원되고 만다. 이 강연에 대해 해러웨이는 데리다가 철학의 오래된 스캔들, 동물을 반응밖에 못하는 동물기계로 환원해온 문제를 잘 부각시켰고, 세련되게 라캉의 문제구도를 해체시켰다고 칭송했다.

그런데 이 주제의 후속 강의였던 「동물, 고로 나는 존재한다 (The animal that therefore I am)」라고 하는 기묘한 제목의 강의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금치 못했다. 이 강연은 데리다가 자신의 흰고양이와의 매우 독특한 경험에 대한 것으로 시작한다. 어느 날 아침 욕실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오는 데리다를 그의 고양이가 꼼짝도 하지 않고 뚫어지게 쳐다본 것이다. 데리다는 자신이 그때 고양이의 시선을 받으며 느꼈던 수치심을 모티브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다.

데리다는 그날 아침의 그 고양이는 그림이나 형상의 고양이가 아니고, 신화나 우화에 나오는 고양이도 아니고, 정말 살아있는 작은 고양이였다고 자신이 느꼈던 그 기묘한 수치심과,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에 대한 수치심의 의미에 대해 길게 이야기 했다. 그는 「개념화되기를 거부하는 존재」로서 자신의 고양이를 발견한 것이고, 「이름이 부재한다는 것은 상실이외의 어떤 것」이라는 귀결에 도달했다. 그러나 해러웨이는 데리다가 왜 거기서 멈추었는지, 고양이가 뒤돌아보았을 때, 왜 철학자는 자신의 고양이에 대해 더 많이 알려고, 혹은 다른 관계를 맺어보려고 하지 않았는지를 되묻는다. 데리다로서는 고양이 앞에서 벌거벗은 자신의 몸이 수치스럽게 느껴진 것이 바로 그 시선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해러웨이는 데리다가 집중한 수치심이라는 것은 오히려 시선을 보낸 그날 아침의 그 고양이에 대한 무례라고 딱 잘라 말한다. 고양이라는 타자를 앞에 둔 철학자 데리다의 수치심이야 그 자신에게는 중요한 문제일지 모르지만, 그날 아침의 암코양이에게는 조금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해러웨이가 아쉬워하는 것은 왜 그날 아침의 그 경이적인 조우가 그 이전과 그 이후의 데리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했는지, 왜 데리다는 고양이와 세상이 맺고 있는 그물코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지 못했는지, 왜 그날 아침의 조우는 데리다의 철학을 수치심에서 멈춰버리게 했는지 하는 것이다.

대개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비루하기 짝이 없고, 틀에 박힌 것이고, 감응은커녕 상대에 대한 모욕으로 귀결되어 버리는 자기중심적인 감상으로 이끌기 십상이다. 들뢰즈와 가타리가 「동물-되기」의 조건으로 무리에서의 특이적 존재를 중요하게 말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길들인다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호불호의 구도에 상대를 끼워 넣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기에 그것은 폭력이고, 길들여진다는 것은 수치다. 그러나 일방적인 길들이기가 있을까? 마찬가지 의미에서 함께 밥을 나누어야 하는 반려종 친족들과의 상호 길들이기는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고 가능한 것일까?

공장식 축산과 같은 가장 폭압적인 만남에서 조차 동물들은 생존거부를 한다. 집단폐사. 동물들이 일시에 죽어버리는 것은 사고라기보다 차라리 생존의 거부일 것이다. 낮은 정도의 자유를 가질 수밖에 없는 실험동물과 인간 연구자 사이에도, 인간이 실험동물에 어느 정도 길들여지지 않는다면 연구는 불가능하다는 과학자들의 증언은 얼마든지 있다.

한때 치명적인 유전병이었던 혈우병은 이제 그렇게 치명적인 병이 아니다. 치료제가 개발되었기 때문인데, 그 실험동물이 개였다. 이때 개는 단순한 반응을 관찰하는 실험대상에 불과했

을까? 실험실에서 연구자들은 개를 환자로서 극진히 보살필 수밖에 없었다. 개가 죽어버리면, 그것으로 실험은 끝이기 때문이다. 이때 개는 실험대상이 아니라 환자가 되고, 과학자들은 이들의 간호사가 된다. 이런 식의 상호 길들이기는 비단 동물이라는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끼리만의 이야기도 아니다.

브뤼노 라뚜르는 파스퇴르의 유산균발견에 대한 에세이에서 유산균이 중요한 액터로서 협조하지 않았다면 파스퇴르의 실험은 성공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라뚜르는 파스퇴르의 수기들을 바탕으로 실험실에서 파스퇴르가 의문의 균을 정제하는 과정을 화이트헤드가 어떻게 설명할지를 상상하면서 글을 써 나간다. "파스퇴르의 실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는 것은, 새로운 존재양식의 내부에 구애되는 것을 '결단'하면서, 선행하는 환경에 내재하는 존재의 궤적을 계기로 주는 것이다.[11)]" 새로운 존재양식이란 말할 것도 없이 유산균이다. 유산균이라는 새로운 존재양식을 계기로 결단하고, 그 실험의 과정 속에 파스퇴르이든 유산균이든 모두 섞여 들어가서 유산균의 발견이라는 하나의 계기를 달성시키는 것이다. 라뚜르는 "파스퇴르의 신체는 유산균을 발견한다는 계기(occasion), 환경, 합생(concrescence)으로서 봉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즉, 파스퇴르라고 하는 주체와 균이라고 하는 대상이 하나가 되고, 즉 하나의 계기로서 혹은 하나의 사건으로서 함께 살고(concrescence), 하나의 발견으로서 이행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파스퇴르가 주저하면, 유산균도 또한 주저한다." 상호 길들이기는 일방적으로 타자를 포섭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경계를 뛰어넘어야 가능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일상의 만남이 비루하고, 판에 박힌 것이 아니라, 아무런 호기심이 없는 만남, 타자에 대한 작은 예의도 없는, 그런 만남이 문제인 것이다. 그것은 사실은 만나고 있어도 실제로는 아무도 만나지 않는 것이고, 타자를 대하는 예의를 모르는 무능함 때문에 만남의 기회를 걷어차 버린 것일 뿐이다. 타자에 대한 호기심이야 말로, 반려종끼리의 만남에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예의라고 헤러웨이는 말한다. 그 호기심이야 말로 뒤돌아보기, 경의를 표하기다. 경의를 표한다는 영어는 respect다. 이것의 라틴어 어원이 respecere '뒤돌아본다'인데, 종의 영어표현인, species도 라틴어 어원이 specere '보다', '응시하다'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종과 종이 만날 때 몇 번이고 뒤돌아보는 것이 반려종이라는 새로운 종의 기본규범이자 예의다.

몇 번이고 뒤돌아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동물생태학자인 바바라 스머트는 아프리카 나이바샤호 부근의 비버의 행동학을 연구한 경험담을 책으로 발표했다. 알다시피 과학관찰의 교의는 절대적인 객관성이다. 그래서 결코 관찰대상에게 개입해서는 안 되고, 자연그대로의 관찰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을 교육받는다. 그래서 스머트는 석고처럼 굳은 채로 비버에게 눈도 맞추지 않은 채 관찰을 시도했으나, 비버들이 번번이 숨어버리는 바람에 연구가 도무지 진척되지 않았다. 스머트는 원래 영장류를 연구하던 학자였기에 자신이 영장류들에게 하던 것처럼, 비버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바꾸었다. 비버들의 걷는 법, 앉는 법, 자세 유지법, 발성 등을 처음부터 배우기 시작했고, 비버들이 서로 어떻게 의사를 주고받는지, 그들의 감정표현법등을 익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숙하지만 그런 신호를 비버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시도했다. 그 결과, 비버들은 스머트가 너무 가까이 가면, 거부하지 않고 싫다는 신호를 보내기도 해서, 스머트가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도록 하기도 했다. 스머트에 의하면 비버들은 그녀를

11) 모리 겐사이, [현대사상, 2014. 8. 특집: 과학자] "공작자의 지혜-화이트헤드, 라뚜르, 스텐겔스"에서 재인용; 화이트헤드는 존재를 사건으로 본다. 각각의 존재는 자신의 환경을 다른 존재와의 만남에 끌고 들어가서 새로운 사건(새로운 존재, 혹은 존재의 양상)을 구성한다. 라뚜르는 재밌게도 파스퇴르의 유산균 발견이라는 사건을, 화이트헤드의 사건의 존재로 재구성해서 설명하고 있다.

특별히 주의하지 않아도 별로 해가 되지 않은 존재로 취급하게 되었다고 한다.

데리다식으로 말하면, 스머트는 비로소 비버들에게 얼굴을 획득한 셈이다. 그것이 위협이되던, 즐거움이 되던 상대방을 인식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각자의 볼일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경험은 스머트의 연구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스머트는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무사히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스머트가 비버의 세계에 개입해서 그들에게 악의가 없음을 확신시켰다고 해도, 그래서 비버가 스머트의 존재를 별로 개의치 않고 생활하게 되었다 해도, 정말 비버의 생활이 이전과 같을까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스머트라는 생물학자가 개입된 비버의 사회생활일 것이고, 비버들과 스머트는 그런 식으로 다시 그물코의 매듭을 고쳐 매게 된 것일 것이다.

이처럼 세속적인 삶에서「~되기」란 언제나「함께 ~이 되기」다. 해러웨이가 데리다에게 아쉬워한 것은 자신의 고양이와 상호 주체적인 시선의 교환이라는 지점에까지 도달했음에도 수치심을 느끼는 자신에게로 관심이 향하는 바람에「함께 ~되기」의 기회를 어이없이 놓쳐버렸다는 것이다. 스머트와 비버의 만남으로 되돌아가서 만남이라는 사태, 그물코를 다시 맨다는 사태를 정리해 보자. 이 만남이라는 것은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반려종끼리의 만남은 결코 무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인간과 비버는 혹은 개와 고양이는 서로 다른 진화적 시간을 가지고 있고, 서로 이질적인 많은 리듬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각자의 리듬을 가진 채로 우연히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만남에서 서로 뒤돌아보게 되었을 때 각자의 생이 재형성될 터이다. 그러니까 스머트만 배운 것이 아니라, 비버들도 스머트와 함께 생활하면서 이미 다른 리듬을 새로 배우게 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전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고 생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관계의 형성과 재형성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형성되는 존재의 그물망이라고 해러웨이는 말한다.

김미루의「The pig that therefore I am」은 상당히 시사적인데, 일정정도 데리다에 대한 패러디가 있는 것 같다. 작가는 공장식 축산 환경인 대규모 돼지우리에 벌거벗은 채 수십마리나 되는 돼지들 사이에 엎드려 있다. 데리다가 그 시선을 느끼고 수치스러워했던 바로 그 알몸으로 그녀는 돼지들 옆에 누워있는 것이다. 이 사진이 보여주는 것은 벗겨놓으니 인간이나 돼지나 별 구별이 없다는 그런 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녀는 스머트가 했던 것처럼 돼지들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몇 차례나 경의를 표했을 것이고, 마침내 무리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작가가 거대한 공장식 축산 환경을 돼지우리로 선택했다는 점도 이 작품이 질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 주는 것 같다. 곧 고기가 될 돼지들과 경의를 표하고「함께~되기」를 시도하는 김미루와 돼지들은 아마도 공장식 축산이라는 여태까지의 매듭과는 다른 매듭을 매려고 할 것이다.

4. 개를 둘러싼 생명정치

이제 반려종에 가해지는 돈과 얽혀 들어간 생명정치를 살펴보자. 해러웨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있는 자본으로서의 인간의 노동력을 포착한 마르크스의『자본론』은 단지 1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 반려동물은 인간만큼이나 생생하게 살아있는 자본이다. 해러웨이의 조사에 의하면 2006년 기준으로 미국 전세대의 63%가 애완동물을 사육하고 있다. 이들은 7390만 마리의 개, 9억천오십만 마리의 고양이, 그리고 1660만마리의 각종 새를 비롯한 생명체들이다. 전미 인구가 3억정도 되는 것을 감안하면, 인간과 살고 있는 이들 생명체들이 만들

어 내는 사료, 의료, 각종 서비스에 관련되는 시장규모는 실로 대단할 것이라는 짐작을 하고도 남는다. 미국은 전세계 반려동물산업의 핵심에 있다. (개 사료의 브랜드를 보시라!)

2006년에 미국의 애완동물 사육주들은 384억 달러를 지출했고 매년 증가율은 인플레이션분을 보정하고도 3~8%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데이비스 캠퍼스는 반려동물을 위한 최신의 의료서비스와 연구를 수행하는 병원을 개원했다. 개의 가장 높은 사망원인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암인데, 여기에 개설된 암병동에서는 인간과 똑같은 최고레벨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박에 85달러로 마사지, 미용, 수영장까지 제공되는 개숙박시설인 샌프란시스코의 「와그」는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유사한 호텔서비스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개의 양육권에 대한 분쟁을 위해 로펌들이 열심히 뛰고 있고, 애견시장을 겨냥한 개 클로닝 연구도 한창이라고 해러웨이는 쓰고 있다.

개의 육종 역시 상품화와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개의 육종은 일하는 개의 능력을 보전하기 위해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또한 자본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아시다시피, 잡종강아지보다는 「순혈종」을 증명하는 혈통증명서가 따라붙는 강아지는 훨씬 비싸다. 인간의 경우 「순혈종」을 고집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이미 종언을 고한 것 같다. 혈통 중시하는 유럽의 왕실들조차도 평민 배우자를 맞아들이는 사례는 심심찮게 많다. 또 우리나라의 농촌이 급격하게 필리핀, 베트남 신부로 채워지는 걸 보면 혈통도 재력이 있어야 보전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인간들의 혈통에 대한 상실감은 애완동물의 혈통집착에 고스란히 투사되는 것 같다. 집에서 키우는 그레이트 피레니즈는 생전 늑대한번 쫓아 볼일 없지만 혈통증명서는 중요하다. 그래서 혈통증명서를 둘러싸고 강아지번식공장과 커넬클럽(한국의 경우, 애견협회)은 끈끈한 먹이사슬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인간도 못 누리는 것을 개 따위에게 라고 하면서 부르조아의 퇴폐적 취향에 대해 분노해봐야 관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개는 이미 계급에 위치되어 있고, 자본시장의 중요한 상품이며, 이들에게도 인간에게 작동하는 만큼의 대단한 생명정치가 작동하고 있다.

우리집 마당에서 키우는 잉글리쉬 코카스파니엘 혈통의 '하니'는 16살이다. 개로서는 꽤 고령인 셈이어서 가끔씩은 동물병원에 가서 건강상태를 체크한다. 한번 할 때 마다 20만원정도의 돈이 들고, 동물병원에서 파는 고급사료를 권유받는 곤혹스러움을 당한다. 그런데 올 봄 검진에서 하니의 간수치가 정상보다 30배 가까이 나왔다는 것이다. 수의사는 정밀검사를 권유했고, 그 결과를 보고 수술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술비용까지 포함하면 200만원이상은 각오해야 했다. 솔직히 나는 어느 범위까지 개를 보살펴줘야 할지가 상당히 고민스러웠다. (한참 개와 인간이 만날 때를 번역하고 있을 때다.ㅠ) 어떻게 하는 것이 윤리적인 판단일까? 개와 나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도 아니고, 소유자와 재산의 관계도 아니지만 15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동거 관계이다. 고민 끝에 고령의 하니를 수술까지 시키는 것은 과잉진료라고 결론내리고 추가검진을 받지는 않았다. 죽음을 잘 맞이하게 도와주는 것도 반려관계의 예의라고 스스로 설득하고는 만약을 대비해서 장례절차 등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다행히 개는 죽지 않았고, 요즘은 비둘기사냥 놀이에 빠져있는 중이다. 덕분에 마당에 놀러온 예쁜 산비둘기가 죽었다.

시장에서 권하는 반려동물과의 관계는 의인화된 가족이다. 동물병원에 가면 수의사는 나더러 '하니 엄마'라고 한다. 나는 그런 호칭에 버럭 화를 내기도 하지만 개의 진료를 고민할 때 혈연관계를 대입해서 생각해 본 것도 사실이다. 추가적인 진료를 포기한 것은 여러 가지가 고려된 것이다. 아픈 개가 고령이 아니라 수술하면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하면 어떨까? 나의 경

우야 중산층이고 200만원의 돈이 부담은 되나 당장 생계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만일 월세 보증금 200만원이 가진 돈의 전부라면? 누군가가 몇 십만원씩하는 개 건강검진 비용과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1년치의 식사비용을 비교한다면 나는 무어라 답할 수 있을까? 생명자본, 생명정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도대체 어떤 비교가 적절할까? 분명한 것은 개와 인간이 상호구성적인 역사를 구성하면서 진화해 온 것처럼, 지금도 이미 생명자본과 생명정치의 포획장치 속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고, 그것에서 빠져나오는 길도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5. 일하는 개

개의 세계에는 애완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하는 개도 상당수를 차지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이 개들이 하는 일은 가축을 보호한다든지, 양을 몬다든지, 맹인을 안내한다든지, 마약사범을 색출한다든지, 바이오테크놀로지에서 실험동물로 일한다든지, 도그 쇼에서 연기를 한다든지, 어질리티 게임에서 스포츠 선수로 활약한다. 이들은 사실 애완견보다는 훨씬 처지가 낫다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사랑을 받고 생존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전문적 능력 때문이지, 사육주의 변덕스러운 애정에 기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해러웨이가 소개하는 개에게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개를 피부양자로 취급하는 언설을 단호히 거부한다. 이들은 개가 일을 가지는 것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다. 개를 보호하는 길은 어린아이처럼 대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보다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개를 키우고 지키기 위해서 육종에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브리더들 많이 있다.

목축과 관련된 개의 역사는 수천년을 거슬러 올라가고, 지역적으로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토종견이라 불리는 풍산개, 삽살개들은 북방의 유목민들이 남하하면서 데려온 개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원래 북방의 개들은 덩치가 크지만 아마 우리나라의 다른 종들과 섞이면서 소형견화 되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사냥개나 집지키는 개로 일을 했지만, 일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육종은 근대의 일이다.

유럽에서는 스페인 국경지대나 피레네 지방에 널리 분포된 그레이트 피레니즈가 대표적인 호축견이다. 이들은 양을 모는 목양견과는 아주 다르다. 이들은 포식습성이 적어서 양을 호위하는 역할을 하는데, 주변의 포식자들을 멀리 쫓거나 위협해서 쫓아내기도 하는 등 공격의 수위를 조절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뿐만 아니라, 어린 강아지들을 훌륭한 호축견으로 키우기 위해 일의 요령을 보여주는 등의 교육에도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은 1차, 2차 세계대전과 불황으로 목축업이 심대한 타격을 입는 바람에 피레니즈들은 졸지에 실업자가 되었고, 개체수도 격감했다. 이들을 수집해서 육종을 시작한 것은 미국과 영국의 유복한 여성 브리더들이었다. 미국에서는 골드러쉬 이후에 목축업이 상당히 부흥했음에도 목양견들과는 달리 피레니즈들이 호축견으로 일을 하지는 못했고, 쇼독으로서만 일했다. 자본주의의 나라답게, 미국에서는 가축을 위협하는 포식자를 위협해서 내쫓기보다는 독극물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늑대나 코요테가 거의 절멸의 단계까지 갔다. 그러나 환경활동가나 동물애호가들이 독극물 사용반대 운동을 펼치고, 연방차원에서 독극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자, 쇼독이 었던 피레니즈들이 마침내 일자리를 얻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독극물이라는 손쉬운 해결책을 찾으려는 목축업자들을 설득하는 일부터, 공무원들에게 호축견의 능력을 입증하는 일까지, 개와 평생을 살아온 브리더들의 헌신

적인 노력들이 있었다. 지금은 미국의 목장주들은 호축견들을 동료와 재산의 중간쯤으로 여긴다.

지금은 피레니즈들이 유럽에서도 호축견으로 활약하고 있는데, 양차대전으로 거의 절멸상태였던 늑대를 북미에서 수입해서 방사하는 활동이 본격화 된 덕분이다. 늘어난 늑대들로부터 가축을 지키고, 환경생태관광이라는 새로운 상품들 덕택에 유럽에서도 개들이 일자리를 얻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하는 개들이 언제나 이렇게 목가적인 풍경만을 자아내는 것은 아니다.

아파르헤이트들이 정권을 장악하던 남아프리카에 북미의 늑대가 비밀리에 수입되었다. 국경의 수비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늑대와 개의 잡종견을 교배시켜서 공격성이 탁월한 개를 육종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개와 달리 늑대는 리더를 따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따라다닐 뿐, 결코 먼저 나서서 공격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종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접근은 실패로 끝났고, 때마침 아파르헤이트도 정권에서 축출되는 바람에 수천마리에 달하는 늑대와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잡종견들은 졸지에 갈 곳을 잃은 노숙자 신세가 되게 되었다. 지금은 몇 개의 민간보호소가 생태관광과 접목해서 운영되고 있으나,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숫자도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라 순혈종만 골라서 200여마리 정도만 수용한다고 한다.

끔찍한 광경은 이스라엘이 차지한 시리아령이었던 골란고원에도 있다. 그곳은 시리아인들이 소를 키웠는데, 전쟁으로 내쫓기고 이스라엘 군인들의 보호를 받는 키부츠가 건설되었고, 이스라엘인들의 대대적인 이주사업이 벌어졌다. 여기에 호축견으로 터키의 악바쉬견이 수입되어서 소를 되찾겠다고 목숨 걸고 넘어오는 시리아인들과 늑대를 쫓고 있다고 한다. 또 하나의 견종이 결부되어 있는 침략의 역사는 오늘도 길게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인들의 난민 행렬과 겹쳐진다. 이것이 해러웨이가 말하는 존재의 얽히고설킨 그물망이다. 그것이 인간만의 그물망일리는 없다. 이처럼 일하는 개들도 자본주의 경제와 국가장치와 밀접하게 얽혀서 살림과 죽임이 동시에 있는 곳에서 인간들과 매듭을 만들고 있다.

6. 죽이기의 윤리와 죽음의 윤리

그러나 우리는 살림과 죽임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물망의 복잡성을 인식하는 것에서 한발자국 더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복잡성에 대한 인식은 환원주의의 폭력성에 대한 깊은 성찰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무능해지기 십상이다. 복잡성에 대한 인식이란 늘 모순적이고 딜레마에 봉착해 있음을 말하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실험동물과 관련된 일은 이 딜레마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일 같다. 실험동물은 인간대신 병이 걸리는 존재다. 옹코마우스는 유방암유전자를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도록 만들어진 생명체이고, 당뇨병에 걸리도록 인슐린분비에 관계되는 유전자를 제거한 쥐, 또는 특정 유전자가 과하게 발현되어 치매에 걸리게 만들어진 쥐들도 있다. 쥐는 인간의 게놈과 80-90% 비슷하지만, 크기도 작고, 생애주기도 짧고, 무엇보다 다산이므로 가격이 저렴하기에 실험동물의 85%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KIST라는 한 연구소만 해도 한해 5만마리의 쥐가 실험노동으로 죽는다. 이 죽임을 우리는 어떻게 사유해야 할까?

실험동물의 죽임에 대해 과학계에서는 흔히 희생이라는 프레임을 시용한다. 많은 연구소들이 실험동물의 위령제를 지낸다. 해러웨이는 『겸손한 목격자』에서 린 랜돌프가 그린 「옹코마우스의 수난」이라는 제목의 그림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한다.

옹코마우스는 나의 형제자매, 아니, 자웅을 불문하고 그/그녀는 나의 자매이다. 그녀가 약속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세속적이지만, 그/그녀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교적인 리얼리즘속에서 전개된 형상이

고, 그/그녀는 우리의 희생양이고,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고 우리가 죽을 운명의 존재라는 사실을, 문화특권적인 모종의 세속적인 구제인 암의 치유를 약속하는 역사적으로 특이적이고 강력한 방식으로 상징하고 실천하고 있다. 그녀의 존재와 이용에 동의하는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그/그녀는 나와 자매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신체의 깊은 곳에서 반복해서 시달리고 있다. 실험생활에서는 그/그녀는 실험 그자체이다.... 나 자신의 신체뿐만이 아니라, 친구의 신체도 포함시킨다면, 나는 언젠가 옹코마우스나 그 후 만들어진 동류의 마우스들의 신세를 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그녀란 누구인가?

옹코마우스에게 순교자의 가시관을 씌우는데 그/그녀의 동의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 고대종교의 희생제의에서도 동물들은 희생 제물로 바쳐졌다. 잡아먹기 위해서였고 대체의 논리에 의해 잡아먹는 죄를 모면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희생제물은 언제나 동물이었고, 이때 동물은 살해되는 '누군가'가 아니라, 죽일 수 있는 '무엇'이었다. 실험동물을 희생양이라 했을 때, 그들은 죽일 수 있는 무엇이 된다. 응답은 할 수 없으나, 고통은 느끼는 무엇. 그러나 실험동물은 인간이 주체이자 객체가 되는 것처럼, "누군가"임과 동시에 "무엇"이다. 동물실험은 실험동물이 액터로 참여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하지만 스머트의 비버나 파스퇴르의 유산균과는 달리 실험동물들은 인간 액터에 비해 상당한 정도로 불평등한 처지에 있는 액터다. 이 불평등과 죽임을 희생이라는 손쉬운 대의에 숨지 않고 반려종의 공존이라는 틀에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 육식을 하지 않고, 모피를 걸치지 않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김미루가 같이 누워있던 축산공장의 가축들은 당장 어떻게 될까? 이미 나름의 진화의 시간을 살고 있는 옹코마우스와 사육장의 실험동물들은 모두 어떻게 될까? 아마도 남아프리카의 늑대신세가 될 것이다. 해러웨이도 말한 것처럼, '암의 치유라는 세속적 구제'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 동물 실험이 중단되면, 모든 신약개발은 중단 될 것이다. 이 간접적인 죽임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 근절주의는 답이 아니다. 하나의 살림에는 또 다른 죽임이 함께한다. 그렇다고 동물의 고통과 인간의 살림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인간이외의 것을 철저히 대상으로서만 여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인간을 특별한 존재라 여기지 않는다면, 죽일 수 있는 충분이유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죽일 수 있는 생명과 죽일 수 없는 생명으로 나눌 수는 더더욱 없을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죽이기가 아니라 어떤 존재는 죽여도 된다는 행위에 있다는 것이라고 해러웨이는 말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일찍부터 동물권리를 주장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피터싱어의 논의[12]를 따져봐야 할 것 같다. 그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동물과의 관계문제를 접근하는데, 인간뿐만 아니라 어떤 동물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기반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그에 따르면, 누구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동물의 이익을 침해할 권리는 없지만, 그것이 불가피할 때는 이익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익의 기준은 고통을 느낀다고 간주될 수 있느냐의 여부다. 그러나 그것을 셀 수 있을까? 셀 수 있기에 경, 중을 따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의 논의는 동물의 해방이라는 급진적인 주장을 함에도 여전히 죽임의 대의, 혹은 죽임의 면죄부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면죄부나 대의 따위가 아니다. 그렇게 면죄부를 받아버리면, 그 대의의 이름으로 죽게 되는 존재에 대해서는 다시 제고해볼 여지조차 빼앗아 버리는 꼴이 될 것이다. 죽일 수 있는 존재는 없다. 하지만 누구도 죽이기의 외부에 위치할 수는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솔루션을 찾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

12) 피터싱어,"동물해방",연암서가

은 일이거나 기만적인 일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피나 손쉬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딜레마를 마주하는 것이다. 희생이라는 허울 좋은 대의에 숨지 않으면서, 또한 인도적인 죽임 따위로 자신을 위로하지 않으면서, 죽이기를 늘 제고할 수 있는 상태로 두고 몇 번이고 뒤돌아보는 것, 그래서 늘 다시 매듭을 고쳐 맬 수 있게 하는 것, 함께 노동하는 불평등한 반려종 파트너에게 응답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다. 요컨대 책임있는 죽이기가 필요하다.

책임 있는 죽이기에 덧붙여서 책임 있는 죽기도 또한 중요한 실천이 되어야 한다. “생명의 고귀함”같은 언설은 신화일 뿐 세속의 언어가 아니다. 바르트가 실천 속에서의 말의 의미와 실천과 무관하게 신화적으로 작동하는 기의의 차이를 지적했듯이, 일상의 생활에서 늘 짐승을 죽여야만 하는 백정에게 “생명”이라는 말의 의미는 고기를 먹고, 가죽신발을 신으면서도 죽이기의 외부에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와는 다르다.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말은 “고귀함”이라는 신화로서 작동하지만, 죽이기의 실천 속에 있는 백정에게 “생명”은 죽음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생명, 혹은 살아있음이 지나치게 특권화 되는 것은 자신은 죽이기의 외부에 있다는 착각과 함께, 죽음의 외부에 있고 싶은 열망에 기인하는 것 같다.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질병과 죽음에서 해방되는 진보를 상정하는 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신화에 기인한다.

생생불식(生生不息). 주역과 중용에 나오는 말이다. 쉼 없는 생과 생 사이에는 죽음이 있기에 죽음이 없으면 생도 없다고 하는, 생(生)과 사(死)의 끊임없는 반복이 생생불식(生生不息)의 의미다. 세속적 삶에서 살아있다는 것이 죽음(죽이기와 죽는 것)과 별개인 적은 없었다. 의료불평등의 문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병은 어떤 경우에도 퇴치되어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의 영화 「나라야마부시코」의 주인공 할머니처럼 죽을 책임에 대한 진지한 사유가 아닐까?

근절주의가 아니라, 반려종 친족에 대한 응답의 한 방식으로 동물실험의 거부나 채식주의는 물론 실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천들이 응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숭고한 대의가 아니라, 어떤 실천에 의해서도 죽이기의 외부에 위치할 수 없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은 채, 책임 있는 죽이기를 실천하고자 할 때 그리고 죽을 책임을 다하고자 할 때일 것이다.

7. 우리는 인간이었던 적이 없다.

이진경은 휴머니즘을 극복하기 위해선 포스트휴먼이 아니라, 프리휴먼을 사유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휴먼의 확장이 아니라, 존재의 평면, 말하자면 인간과 기계의 평면화, 생명과 기계의 평면화, 박테리아 군체로서의 생물학적 평면화, 인간의 정신에 특권적이지 않은 분자적인 식(識)으로의 평면화가 요구된다는 것이다.[13] 거기에 해러웨이의 논의를 덧붙이고 싶다. 존재의 평면으로부터 개체화의 운동이 진행될 때조차도 우리는 휴머니즘이 말하는 휴먼으로 산 적이 한 번도 없다. 생물학적 세상에서 뿐 아니라, 세속의 세계에서도 인간만의 것이라 자부하는 문화와 역사조차도, 인간의 중요한 타자들이었던 가축과 기계와 함께였고, 앞으로는 복제된 생명, 유기체에 이식된 기계와 함께 문화와 역사를 이루며 살게 될 것이다.

[그림1]은 해러웨이가 ‘짐의 개’라고 부르는 사진이다. 해러웨이의 동료이자 친구, 제임스 클리포드가 산타크루즈의 협곡을 산책하다가 이 사랑스런 개를 발견하고서 사진을 찍어 보내준 것이다. 협곡에서의 이 개의 모습은 한 계절 정도 밖에 지속되지 않았지만 디지털카메라라는 테크노사이언스에 힘입어서 우리는 지금 이 개를 만나고 있다. 디지털카메라의 높은 해상도

13) 이진경, <인간을 넘어선 인간?> 포스트휴먼에 대한 6개의 강의 중 1강 강의, 수유너머 N,

덕분에 이 개를 보고 있으면 손가락에 털의 촉감이 느껴질 정도다. 테크노사이언스와 결합되면, 감각 기관조차 경계가 허물어져 버리는 것 같다. 이 사진을 보고 있는 눈을 '손가락 눈(fingery eye)'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우리는 이미 사이보그로서 이 개를 만난다.

이 개는 19세기 벌목 노동자들이 베어낸 세콰이어 나무둥치다. 도시가 들어서고, 주변의 협곡을 이어주는 산책로가 만들어지면서 잘려나간 나무밑둥이었다. 화재가 있었던지, 검게 눌러붙은 나무껍질에는 온각 지의류와 이끼, 박테리아 등등, 유기체와 비유기체들이 모두 함께 살면서 한 계절 동안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산타크루즈의 협곡이 부동산 개발에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실리콘밸리를 반면교사로 삼은 그린벨트 정책 때문이기도 했고, 지진이 잦고 침식이 잘 되는 토질덕분에, 개발매력이 떨어지는 덕분이기도 하단다. 언제부터 거기에 살고 있었는지도 모를 세콰이어나무들, 도시 건설에 동원된 19세기의 벌목노동자들, 부동산 개발, 토질, 햇빛, 바람, 습기, 숲을 점령하고 있던 박테리아와 지의류, 이끼등등의 온갖 반려종들과 함께 살고 죽으며, 심지어 함께 역사를 형성해 온 것이 이 개다.

해러웨이가 짐의 개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개는 물질적으로도 기호론적으로도 앞에서 살펴본 실제의 개들과 다르지 않고, 목적론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온갖 것들의 살림과 죽임으로 형성된 그물코의 체현이라는 것이다. [그림2]는 시드니 해리스가 1996년에 완벽한 비율의 인간 『비트로비우스적 인체도』를 빗대어서 그린 것이다. 이 레오나르도의 개가 보여주는 것은 초월과 완전함 그리고 정화에 대한 열망이다. 우리가 인간이었던 적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죽임과 살림이 동시에 존재하는 세속적인 세상에서 이런 개는 존재한 적이 없다.

트랜스휴먼, 혹은 포스트휴먼이 또 다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휴먼을 상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새로운 사유도 줄 수 없을 것이기에 보다 나은 삶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적대가 만연하는 세상에서 나 혼자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로봇이든, 사이보그든, 복제인간이든,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이든 테크노사이언스와 결합된 새로운 친족은 아마도 계속 추가될 것이다. 그들 역시 죽이기와 죽기를 포함하는 세속적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생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해러웨이의 말대로 삶이란, 다양한 반려종들과 구체적인 삶속에서 매듭을 묶는 것이다. 미래에 이들이 인간을 공격한다면, 그들이 인간보다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간 인간과 맺어온 역사를 다른 매듭으로 고쳐 묶기 위해서일 것이다. 매듭이란 누가 죽고 누가 살 것인가의 매듭이기에 매듭묶기를 가이드 할 수 있는 대의 따위는 없다. 우리는 매듭을 묶지만, 완벽한 매듭은 있을 수 없기에 늘 다시 고쳐 맬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듭을 고쳐 맬 수 있는 여지, 언제나 제고될 수 있는 죽이기이다.

포스트휴먼 논의는 포스트반려종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반려종 친족의 카테고리에 들어올 테크노사이언스의 어린 친족들과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매듭을 맬 수 있을까? 2009년에 있었던 쌍용차파업에서 새로운 매듭의 사례를 볼 수 있다. 파업 중인 노동자들은 사측이 단전을 시킨 와중에도 공장의 도장시스템이 망가지지 않도록 발전기를 돌렸다. 자신들은 칠흑 같은 어둠을 감수하면서 오히려 자본가의 것인 도장시스템을 지켜낸 것이다. 소유관계 이전에 공장의 기계와 노동자들은 이미 반려종 친족이기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 이런 실천들은 포스트휴먼논의가 지속적으로 배워야할 이야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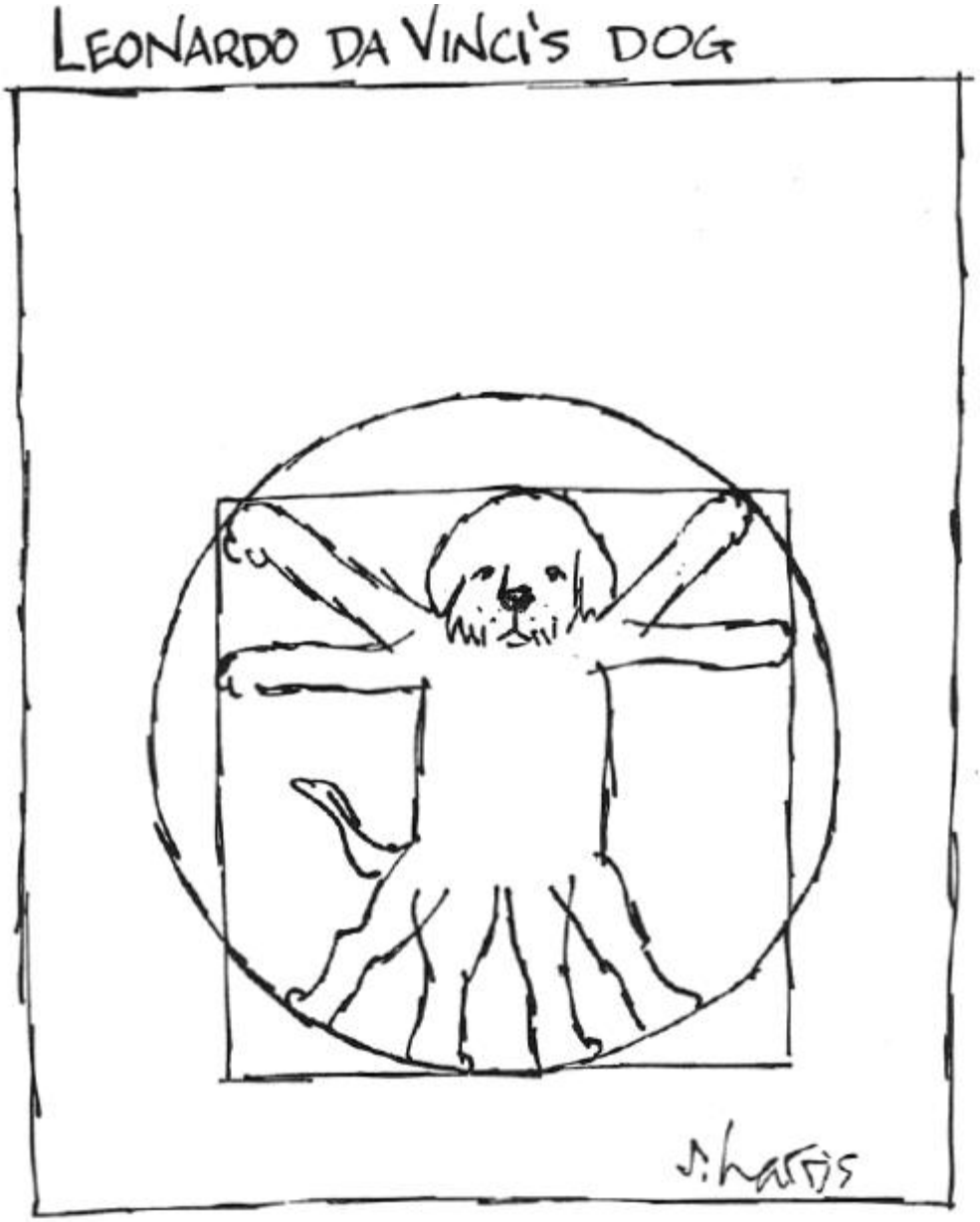
해러웨이는 접촉지대(contact zone)를 통해서만 이데올로기로서의 신화를 극복하고 세속적 윤리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한다. 쌍용차노동자들이 기계와 가져왔던 접촉지대 덕분에 그들은 그날 기계와 다른 매듭을 묶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접촉지대의 의미는 당사자를 제외하곤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접촉지대는 계속 확장될 수 있고, 계

속 확장되어야만 한다. 접촉지대가 글로벌하면 할수록 더 풍성한 의미들을 생산할 것이고, 새로운 방식의 매듭 묶기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해러웨이가 자신의 개, 오스트레일리안 세퍼트를 통해서 아메리카 서부의 침략의 역사와 남아프리카의 아파르헤이트와 결부된 폭력의 역사에 접촉하는 것처럼, 접촉지대는 당사자주의의 폐쇄성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글로벌화(alter globalization)를 모색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이었던 적이 없다. "인간"은 이데올로기이자 신화일 뿐이다. 생물학적으로도 수많은 세균과 박테리아가 압도적으로 우리 몸을 장악하고 있고, 세속적인 삶에서도 인간은 인간들끼리가 아니라, 기계, 동물, 복제생물들과 역사와 문화를 함께 만들어 왔다. 테크노, 바이오사이언스에 힘입어서 반려종의 카테고리에 들어올 멤버들은 계속 추가 될 것이기에 죽이기와 돌보기의 모순적인 상황은 더욱 증폭할 것이다. 이 모순적인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인간"이라는 신화로는 어림없는 일이다. 포스트휴먼이 던지는 질문의 의미를 프리휴먼에서 다시 사유하고, 반려종이라는 실천적인 의미로 다시 묶어야 할 때다.

Jim's Dog. Courtesy of James Clifford.

<그림 1> 짐의 개



"Leonardo da Vinci's Dog." Copyright Sidney Harris, ScienceCartoonsPlus.com.